

응급의료 현황 및 정책 개선 방향



송재동 심사평가연구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는 치안, 소방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공공의료 영역 중 하나이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 기후의 변화, 대량 재해의 발생, 사회의 복잡화 등으로 응급질환 또는 손상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응급의료기금의 조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응급의료 진료권 및 수가 개편 등을 통해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였다. 2018년에는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3월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회를 통해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책의 추진 방향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수가이다. 수가는 의료체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수단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도 응급의

료수가의 항목분리,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수가 신설 및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제14권 1호에서는 ‘응급의료 현황 및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응급의료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그간 이루어진 개선 내용들과 현황을 한번 되짚어 보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볼 기회를 마련하였다. 모든 제도와 재정적 뒷받침은 더 나은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국민들의 동참 역시 중요할 것이다.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